

그림과 이야기로 빚어낸 상상의 바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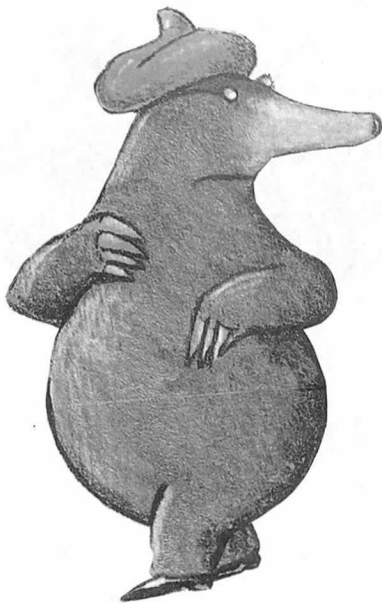
〈세계의 그림책, 우리의 그림책〉 전시회

국제어린이도서협회의 한국지부(KBBY)가 주최한 제1회 어린이책 전시회가 지난 3월25일부터 9일간 연세대박물관에서 열렸다.

이번 전시회에는 국내외 어린이그림책 200여권과 원화 30여점을 선보여 나라마다 독특한 그림책의 개성을 엿볼 수 있게 했다. 한국그림책은 ‘한국신화와 옛 이야기’ ‘전통문화’ ‘창작동화’ ‘한국사’ 등 주제별로

나뉘어 전시했으며, 번역그림 책은 20세기 초부터 현대까지 유명작가의 그림책을 한데 모아 나라별 특징을 읽을 수 있게 했다.

이 가운데는 아프리카, 아시아, 북유럽, 오스트레일리아 등 우리에게 낯선 나라들의 그림책도 소개돼 색다른 느낌을 자아냈다. 이번 전시회에 선보인 그림책과 원화의 여러 모습들을 소개한다. <편집자>



IBBY가 선정한 세계의 그림책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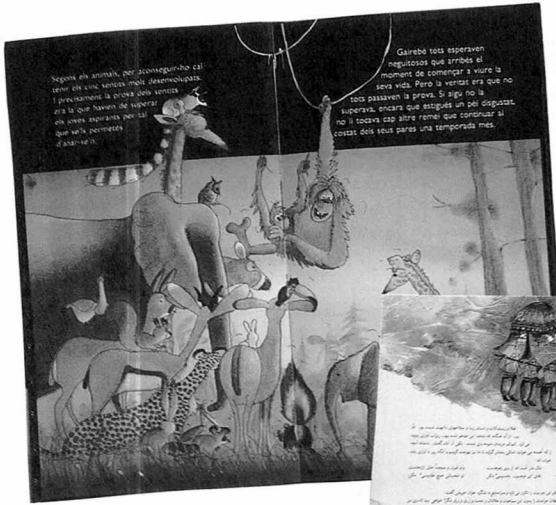
표지 그림

자연을 아끼는 그림동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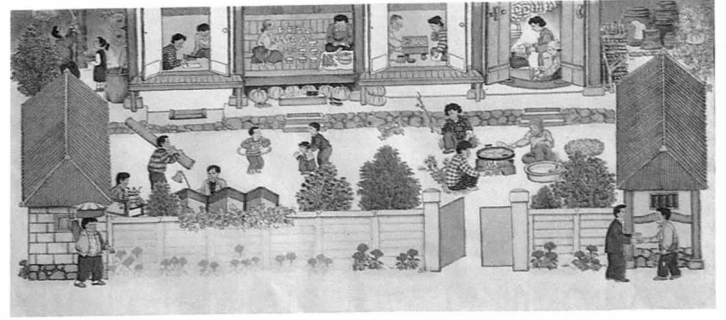
타냐 로티만의
《에코와 로지 이야기》

이스라엘의 타냐 로티만이 그린 《에코와 로지 이야기》(Ha-Sipur Eco Ve Logy, 타마르 아다르 글) 중 한 장면이다.

주인공 에코는 자기가 아끼는 공원을 망가뜨린 ‘로지’를 연구하기 시작한다. 과연 ‘로지’라는 짐승은 존재하는지, 자연을 해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곰곰 생각하는 에코를 보면서 “우리가 아끼는 세상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”도 생각하게 된다. 깔끔한 수채색의 이미지들이 매력적이다.



구스티(Gusti) 《안녕, 행운을 빈다》(스페인)
어린곰 그랜쿠가 경험하는 수풀의 신비.



이억배 《솔이의 추석이야기》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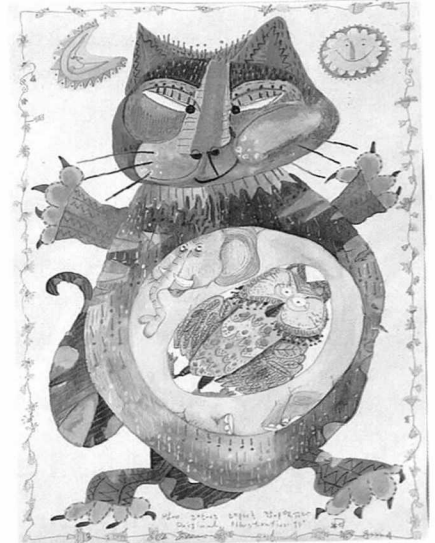
피로체코 골모함미디
《염색통에 떨어진 자칼》(이란)



이춘길 《고인돌》.



바버라 쿨니(Barbara Cooney) 《에밀리》(미국)
이웃집 소녀가 바라본 에밀리 디킨슨 이야기.
올해 국제 안데르센상의 후보작품.



정지애 《밤에 고양이와 꼬끼리를 잡아먹었다》.

프리카자카 차 팔라보토
《떨수 없는 메뚜기의 이야기》(불가리아)



전시회에 선보인 국내 그림책들.

카렐 프란타(Karel Franta) 《체코의 옛이야기》(체코) 보헤미아 여러곳의 옛이야기를 통해 신비한 체코의 역사와 풍습을 들려준다.